

우리 經濟의 成果와 課題

經濟企劃院

최근 수년간의 狀況

최근 수년간 우리는 物價안정이나, 소비절약과 저축증대나, 外債절감이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왜 정부는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그토록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해 왔으며 국민들이 정부의 그와 같은 호소에 부응해서 저마다 한결음씩 양보하고 실천해 온 노력의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나 거두었을까?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對 內外的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80년대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제2차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세계경기의 침체, 자기나라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의 강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같은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모두가 어두운 상황이었다.

나라밖의 여건도 불투명한데다가 안으로는 물가가 40% 이상 오르는 가운데 생활필수품의 가격과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올랐으며 그 결과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가 하면 우리상품이 대외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수출은 늘지 않아 외채와 실업자는 크게 늘어나던 것이 그 당시 우리경제의 모습이었다.

80년대를 맞는 당시의 어려움은 일부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겪어야 했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우선 농민은 대홍작으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데다가 80년 쌀 수매가를 25% 올렸으나 도매물가가 42%나 상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큰 손해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과열된 부동산 투기는 자기집이나 자기 땅을 못가진 사람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었고 근로자의 임금은 많이 올랐으나 물가가 그보다 더 올라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80년 한해동안만도 20여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마다 한결음씩 양보하고 어려움을 나누어 지면서 실천해 온 노력의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안정우선의 경제정책

국내외 여건이 이처럼 어려운 때 제5공화국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안정에 두고 단기적으로 인기도 없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안정기반을 구축하여 내실있는 성장을 다짐으로써 각계각층에 그 효과가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안정정책을 선택하였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농민은 낮은 임금상승이나 수매가 인상, 정부는 예산과 공무원봉급 동결, 기업인은 통화긴축으로 인한 자금난과 판매의 감소 등 국민 모두가 단기적으로 고통을 당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한걸음씩 양보하고 슬기롭게 고통을 참고 견뎌냄으로써 30~40%에 이르는 물가고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일이라 하겠다.

물가안정의 혜택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실질소득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임금이나 쌀값이 높은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것만 물가가 그 이하로 안정되어 근로자와 농민의 실질소득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높은 물가 아래서의 높은 임금상승이나 수매가 인상보다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또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도 상당히 회복되어 세계경기가 채 확산되기 전에 우리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제수지적자는 지난 80년의 53억 불에서 84년에는 14억 5천만불로 크게 개선되었다.

기업들도 임금이나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 비용면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고 기술개발, 생산성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알찬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경제가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성장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83년 9.5%의 높은 성장에 이어 84년엔 7.5%의 실질성장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30만을 포함해서 약 100만명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한편 농업기반의 확충에도 주력하여 왔다.

농민에 대해서는 경지면적은 좁은 데다가 물가, 나라살림, 도시서민가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의 가격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굳건히 다짐으로써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한편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업기제화, 영농후계자 육성 등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힘써 왔다.

또한 쌀, 보리 등 주곡이 자급되어감에 따라 원예, 축산 등 복합영농을 시범단지 및 시범마을을 통해 널리 보급하고 농어촌 공업지구를 지정하여 중소기업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농민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한편 새마을 도로 등 각종 도

로의 포장 및 확장, 20호 이상 전 자연부락의 전화가설, 간이급수시설 설치로 상수도보급, 농어촌의 전기보급, 100호 이상 마을까지 버스운행노선확장, 새마을 유아원, 중·고등학교 증설 등을 통한 교육의 확대 등 농촌생활의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최근 주부, 학생, 근로자, 공직자, 기업인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농어민의 28%가 아직도 쌀값 인상을 원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농민은 복합영농이나 농외소득을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해 왔다.

특히 경영능력이 있고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각 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과학기술원 등을 통해 자금, 기술 및 경영상담, 인력훈련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정보제공, 외국기술도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팔리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품질과 가격조건이 불리한 기업까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반제조업 등 103개의 중소기업 고유사업 영역을 정하여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청대금을 제때에 지불하고 기술과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생활의 개선

경제성장 혜택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우선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비 예산을 늘려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570여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시설을 크게 개선하고 과외수업을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등 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동안 직장인에 대한 의료보험과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꾸준히 늘려와 이제는 전국민의 거의 절반이 어떤 종류든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보건진료소 1,000 개소를 신축하고 1,330 개소에 보건진료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농어촌의 의료혜택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영세민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영세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과 영세민 자녀에게는 직업훈련과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난이 대를 이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

산업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추가 되는 도로의 신설, 포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다.

특히 광주~대구간의 88 올림픽고속도로의 완

공으로 영호남간의 생활권이 반나절로 이어짐에 따라 중앙으로만 연결되던 고속도로가 지방에서 지방으로 연결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또한 통신시설의 대량공급체제를 마련하여 80년 283 만대에 불과했던 전화시설을 84년엔 620 만대로 2.2 배나 끌어올려 전화체제를 대부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과거 전략산업 위주의 집중지원, 거점 도시개발 등을 지양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감에 따라 앞서의 여론조사에서도 20%의 사람이 서울에 살겠다고 응답한 반면 그 두배가 넘는 42%의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년대초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여 이들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룩한 성과를 돌아 보았다.

이는 물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 각계각층이 이에 호응하여 인내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조한 덕분이라 하겠다.

이제 온 국민이 단합하여 다져놓은 안정기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내실있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기업체질 강화해야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한 여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안정바탕 위에서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일이다.

경제성장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안정바탕이 없이는 애써 번돈이 일한 사람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이겨 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만과 일본이 제 1차 석유파동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20여년간 출공 한자리 물가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경제운영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겨우 2~3년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물가가 안정

됨에 따라 생활비 지출이 과거처럼 늘지않아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람과 지금 당장에는 소득이 늘지않아 손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계속 물가가 안정되면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67%나 되어 여론도 물가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84년 들어 상반기에는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비롯한 민간소비증가에 따라 과열기미까지 보였지만은 이러한 안정성장정책에 따라 긴축을 계속하여 경기가 진정되자 일부에서는 어려운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높은 인플레이에 매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데 익숙한 기업으로서는 물가가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안정이 뿌리내리는 최근의 상황은 과거와 같은 높은 매출액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한 자금부족을 느끼게 된다.

이런때 일수록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빚을 적게 지는 내실있는 경영으로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려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여신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대기업의 편중대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이나 부실제철 기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은행 빚보다는 주식발행이나 회사채를 팔아서 조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능률이 떨어지는 제철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전체기업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고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세계 제일의 품질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몇 주력 전문업종에 전념하여 국제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경제는 84년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불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앞서가는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소득이 이 수준에 이르게 될 때 국민들의 기대가 급격히 늘어났다.

소득은 늘고 생활수준은 나아지게 되나 기대수준은 이보다 더 높아져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남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나 불만감이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욕구의 증대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더구나 앞으로 외국빚을 더 이상 지지않고 7~8%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연간 40만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저축률을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흔히 저축이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일이다.

돈은 힘겹게 번만큼 쓰는것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과거의 인습에 따라 무심코, 체면이나 걸치때 때문에, 남이 사니까 나도 사야한다는 식의 소비생활은 이제 과감히 청산해야 하겠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온 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며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전쟁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 살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언제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모든 면에서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경제의 충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내실있는 우리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가지씩이라도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자. ♣